

강달러·유가상승 불안감 고조... 국내경기 불확실성 커지나

중동전쟁 發 금융시장 영향

코스피 2.28% 하락 2609.63 마감
원·달러 환율 장중 1400원 넘어서
당국 “안정화 조치 적기에 시행”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중동전쟁이 고조되면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주식시장 침체, 강달러(원화약세) 장기화, 유가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며 16일 금융시장은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26억원과 2949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551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9.61포인트(2.30%)하락한 832.81에 거래를 마쳤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2억원,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인이 무장병력수송장갑차(APC)에 국기를 부착하고 있다. /뉴스1

1586억원을 내다 팔았고, 개인은 1855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금 가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전날보다 8.9달러(0.37%) 상승한 온스당 2383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

우면서 한때 1400원선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2022년 11월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5차 중동전쟁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진 영향이다. 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자

산인 달러와 금 등을 사들인다.

반면, 이달 원화 가치는 약 2% 하락하면서 주요 31개 통화중 원화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쟁 중인 루블(-1.69%)과 이스라엘 셰켈(-1.54%)보다도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우려했던 국제 유가 급등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보복과 확전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0.7% 오른 90.45달러를 기록했다.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9% 상승한 85.66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전쟁 확전으로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쟁 확산 우려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당국은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불안 요소에 적극 대응하

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추가 상승 혹은 불안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침체의 그림자, 즉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IMF, 올해 韓 성장률 전망 2.3% 유지

내년 2.3% 전망, 국내 예측치보다 높아
미국의 올해·내년 예측치 상향조정
ADB, 올해 韓 경제 2.2%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올해 1월) 제시한 수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내년 예측치도 2.3%를 고수했다.

IMF가 제시한 2024년도 수치는 우리 정부(2.2%) 및 한국은행(2.1%) 등의 예측치보다 높다. 반면 IMF는 미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을 모두 상향조정(+0.6%p, +0.2%p)하고, 일본은 내년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0.2%p).

국제통화기금은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ADB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2%대로, 작년(1.4%)보다는 경기 위축이 완화할 것으로 본 것

이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어 내년에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이라 예측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3%, 내년 2.1%를 제시했다. AMRO는 아시아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지속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ADB와 AMRO 모두 상승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한국 정부의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및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 등 안정화를 점쳤다. AMRO 또한 ADB와 같은 예측치(올해 2.5%, 내년 2.0%)를 제시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에서 물가 오름세가 주춤할 것이라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사면초가 韓 증시’서 계속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2.42)보다 19.61포인트(2.30%) 내린 832.81에 거래를 종료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86억원, 101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3.91%), 기계 장비(-3.46%), ITH/W(-3.42%) 등이 3%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로 인한 달러 강세와 연일 상승하는 미 국채 금리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중동 긴장과 금리 부담을 악재로 반영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라는 경기오인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파주 하라는 경기

파주에서 열립니다

경기도체육대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THE 14th GYEONGGI-DO PARA GAMES 2024 PAJU
2024. 4. 25(목) - 4. 27(토) [3일간] 파주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
4. 25(목) 16:30~19:30 / 임진각 평화누리

정민호
 알리
 류원정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
THE 70th GYEONGGI-DO SPORTS FESTIVAL 2024 PAJU
2024. 5. 9(목) - 5. 11(토) [3일간] 파주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식
5. 9(목) 17:30~20:30 / 임진각 평화누리

다이아리두오
 에일리
 김희제
 송민준